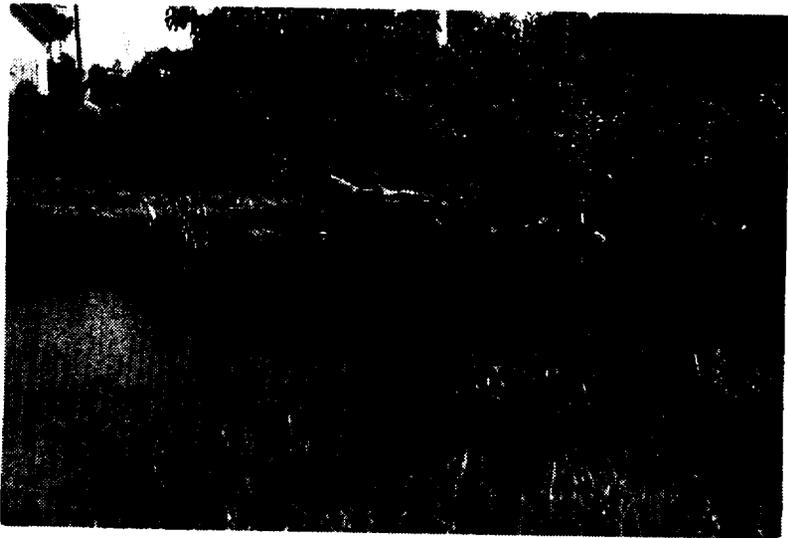


■ 현지학술조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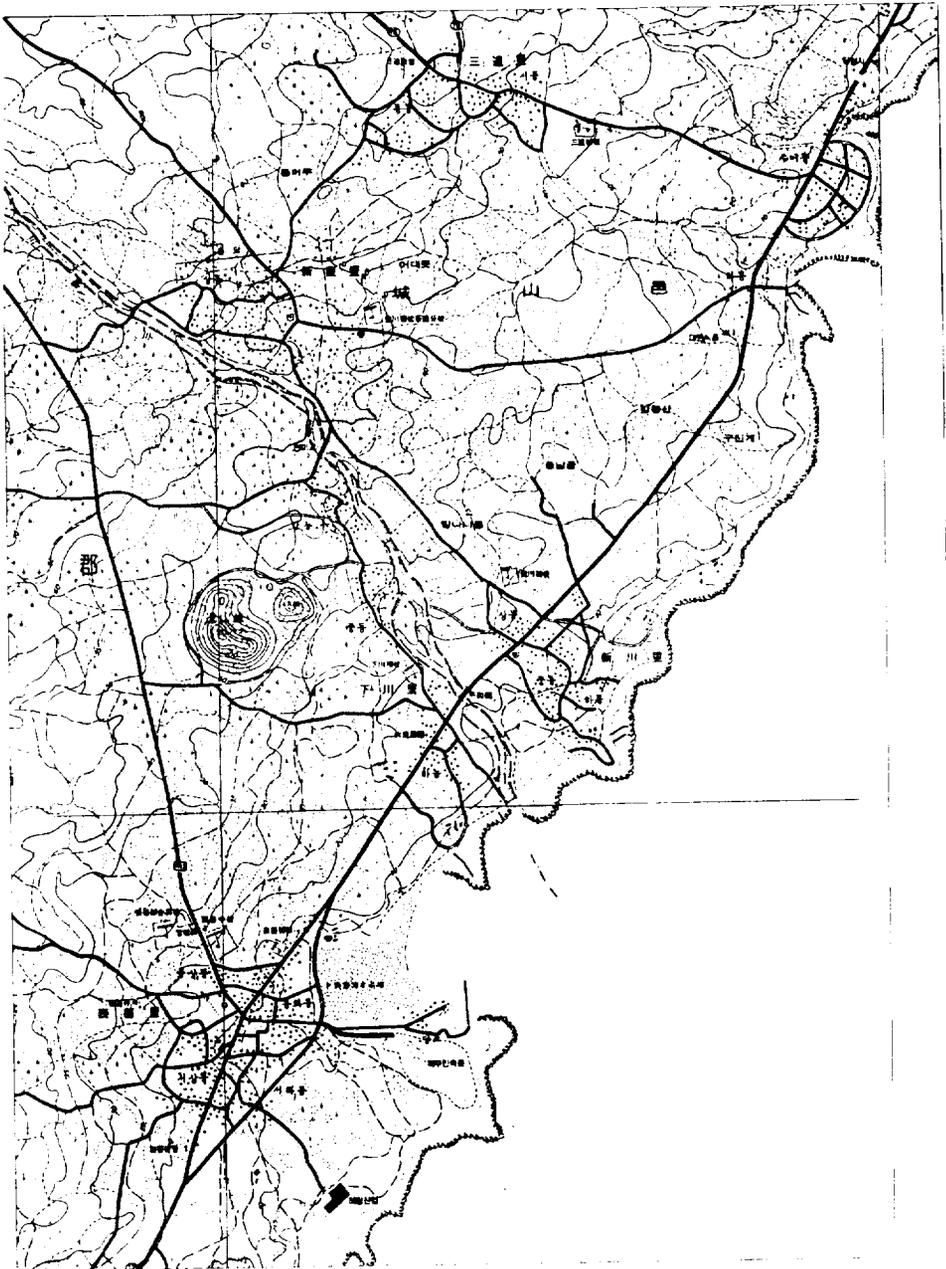
南濟州郡 城山邑 三達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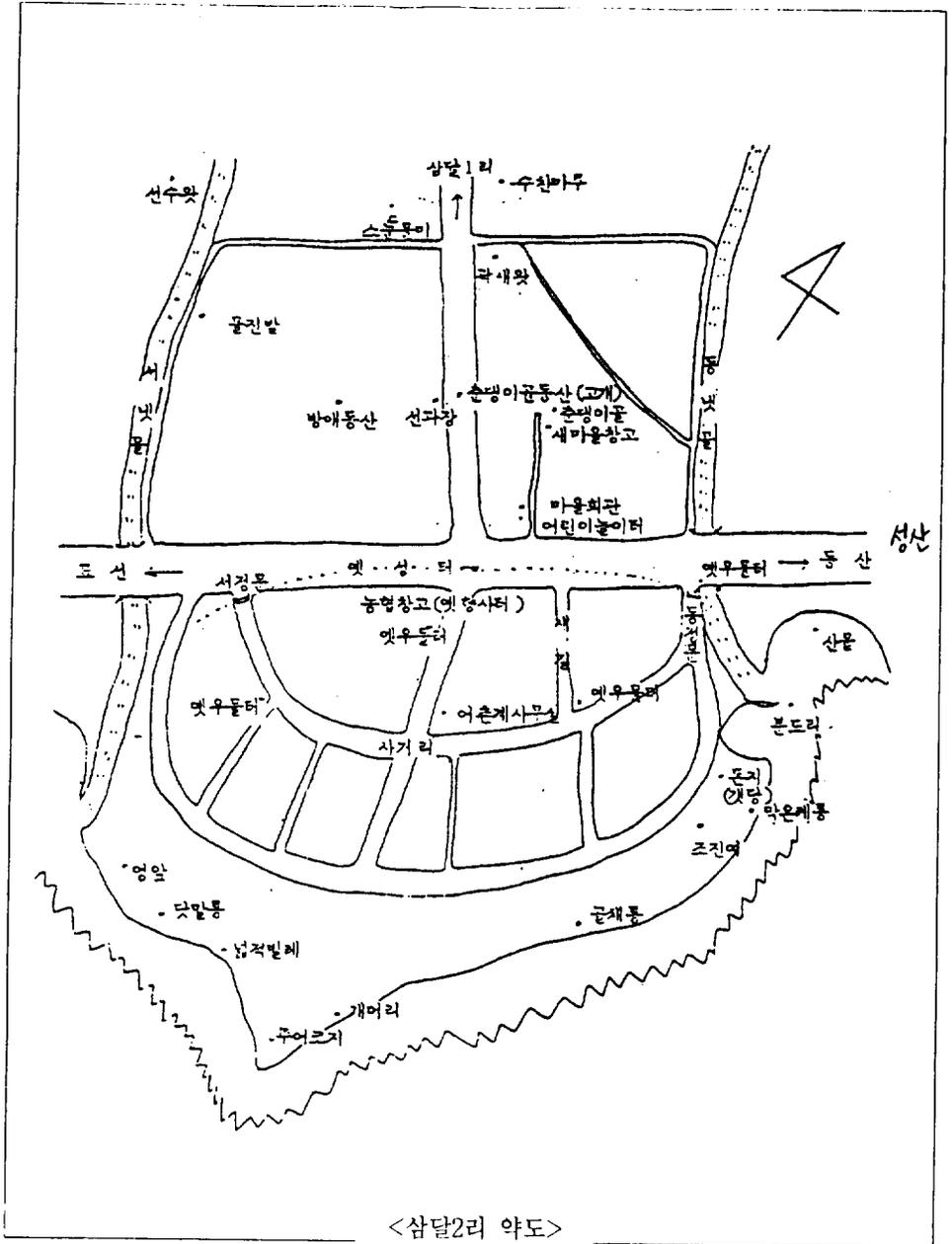
1997년 8월 22일 ~ 8월 24일 조사

● 사회배경 / 방언 / 민요 / 설화 / 신앙 ●



<매미못>





<삼달2리 약도>

社會背景

차 례

1. 일반현황
2. 설촌·지명 유래
3. 지리적 환경
4. 개발전망
5. 관광·문화분야
6. 산업환경
7. 개발전망
8. 세시풍속·향토음식

1. 일반현황

면 적					가 구			인 구		
계(ha)	전	과수원	임야	기타	계	농어가	비농가	계	남자	여자
1,220	289	124,3	680	126,7	242	203	39	849	409	440
재 산 상 황					주 요 시 설					
마을 회관	창고	경로당	목장	공동 묘지	학교	은행	의료 시설	발전소	공공 기관	기타
2	2	1	1	1	1					
자 생 조 사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원로회	영농회	작목반	기 타				
1	1	1	1	1	18					

2. 설촌 · 지명 유래

삼달리 옛 지명은 '와강'이며 설촌 유래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구전하는 바에 의하면 처음 부락이 형성이 되었던 가까이 있는 '더러물내(川)'의 형장이 누워 있는 강을 닦았다고 하여 와강이라 일컫게 되지 않았는가 추측하고 있다. 와강 마을의 형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 조선 인조시대(1623-1649)를 기점으로 한다. 지금 마을제를 지내고 있는 본향당을 중심으로 경주 김씨, 청주 한씨, 진주 강씨, 제주 고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5, 6여호 가구를 이루고 살았는데 크게 번창하지는 못했다. 그 당시는 신천리를 가장 가까운 마을로 왕래하여 큰동마루에서 마을제도 같이 지냈다. 그러던 중 1749년(영조25년)에 신천리에서 신천 강씨 일척이 자녀 육남매를 데리고 '와강리'로 이주하였는데 점차 와강리의 중심적인 문중으로 형성이 되었으며 오늘까지도 면면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 후 광주 김씨와 현재 제주 고씨가 1761년(영조 37년)경에 이주하여 왔고 곡산 강씨가 온평리에서 이주하여 옴으로써 와강리는 차츰 마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250년 전부터는 부락제도 포제 동산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와강리라는 명명은 양반이 사는 곳으로 적합치 못하다 하여 조선 영정조시대 강성 악공에 의해 삼달리라고 개칭하게 되었다. 삼달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풀이해 본다면 사람이 통달해야 할 세가지를 이름인데 첫째로 조정에서는 규율이 중요하고 둘째로는 고을에서는 윗사람을 섬겨야 하며 셋째로 세상의 보은과 백성을 위하는 것은 덕으로 하라는 뜻이다. 삼달 즉 셋을 통합하면 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 했는데 그후 지금까지 천한 사람은 이곳에서 살 수가 없었으며, 설촌 350여년이 지나는 동안 와강마을을 최초로 개척했던 제주 고씨, 청주 한씨, 진주 강씨 일가가 살았다는 한새이터, 수용이터 등이 구전으로 남아있으나 그 후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타지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거나 경주 김씨 자손만이 유일하게 삼달

2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삼달1리에 거주하고 있는 호주들의 성씨를 통계내어 보면 신천 강씨와 그보다 조금 늦게 입주한 광산 김씨 문중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삼달2리의 옛 지명은 주어나, 주어라고 부르게 된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분야포에서 대포에 이르는 삼달2리 구역 해안에 갖가지 해어가 모인다고 하여 주어하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주어의 사정은 아무리 가물어도 식수 걱정이 없었고 농사가 잘 되어서 식량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으로 삶에 어려움이 많아지게 되자 540번지로 이주하여 왜구의 침입이 끊어지면서 1880년 경 광주 김씨를 사위로 맞게 되는데 이로써 김씨 일족이 정착하게 되었다. 삼달 상동에서 경주 김씨가, 우도에서 김해 김씨가, 이주해 오면서 마을을 이루게 되었는데 1910년경에는 20여호의 가구수를 헤아리게 됨. 1940년에는 광새앗 너거리를 중심으로 상·하동을 구획하여 마을을 다스려 왔는데 1945년 해방이 되면서 행정 구역상 삼달2리로 분리되면서 오늘에 이루게 되었다.

3. 지리적 환경

- 1) 위치 : 신산리, 신천리와 인접하는 마을로 신산리에서 동쪽으로 1km 신천리와는 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삼달 1리는 2리에서 북쪽으로 1.5km 정도 거리에 위치하여 있다.
- 2) 토지이용 : 총면적 1,220ha 성산읍관내에서 두 번째로 큰 마을이며 이용분포로는 임야가 56%로 가장 넓게 분포하여 있고 농경지(전, 과수원) 34%, 기타 10% 가임
- 3) 교육시설 : 국민학교 1개소가 있고, 의료시설로는 보건진료소가 1개가 있다.
- 4) 인구 및 가구현황 : 남녀 인구 구성비율은 남자가 409명, 여자가

440명으로 48 : 52로 되어 여자 인수가 많다.

- 5) 주택 상·하수도 보급상황 : 주택보급율은 100%, 상수도 보급율은 100%, 1인당 급수율은 243 ℓ, 하수도 보급율은 64.4%이다.

4. 개발전망

- 1) 주택의 질적 향상,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주택공급 : 100%(질적향상 : 양옥 등)

상수도공급 : 100%(1인 1일 급수량 243 ℓ에서 340 ℓ로 확대)

하수도공급 : 보급율 64.4%→65%로 확대

재해예방시설 : 하상정비 1KM(200만원)

- 2) 노인복지 시설이 확충되고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대비하여 노인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보강이 점차 이루어질 것이다.

경로당 시설 보강 : 1개소

- 3) 보건진료소 시설 보강 : 원활한 의료서비스 및 효율적인 군민의 건강 욕구에 맞는 1차 보건진료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가 보강 될 것임. 가정 방문과 환자 이송에 필요한 기동력 확보하고 농어촌 현실을 감안한 노인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며 보건진료원의 업무보조를 위한 보조요원(마을건강원 등) 충원하며, 보건 정보 체계 수집 강화를 위한 전산장비 보급할 것이다.

5. 관광·문화분야

- 1) 관광지 개발 : '미천굴'을 개발하여 지역주민 참여사업인 농어촌 휴

양단지로 지정 개발 된 것임. 위치는 성산읍 삼달리 산 1007번지 일대이고, 도입시설은 숙박, 위락, 시설, 식당 및 상가이며, 면적은 50,000㎡. 농산물직매장, 개발주체는 지역주민 공동 개발이다.

- 2) 미지정 문화재 정비 보존 : 역사적 가치가 있는 미지정 문화재는 더 이상 훼손 방지되지 않도록 정비하여 보존될 것이다.

<신당 : 본양당>

마을	위치	보존방안
삼달 1리	속칭 본당자리	제단, 고목, 바위, 원초적수림 보호
삼달 2리	속칭 본당자리	

<포제단>

마을	위치	대지면적(㎡)	개척시기	보존방안
삼달 1리	속칭 「포제동산」	50	음력 1. 5~1.15	제단, 원초, 적수림 보호 등
삼달 2리	속칭 「포제동산」	50	음력 1. 5~1.15	

6. 산업환경

- 1) 감귤은 재배면적은 증가하지 않고 간벌, 품종갱신 등을 통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것이다.

생산부분 : 간벌 37ha, 적과 686ha, 토양개량 110ha, 품종갱신 28ha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 다목적스프링클러 설치 54ha, 대형방제기 4개소

* 농업의 진흥 : 감귤산업은 품질개선 및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2) 일반작물 : 감자 당근은 계속해서 재배될 것이나 다른 일반 작물들은 개배 감소가 예상되지만 일반 농업분야에서는 기계화 전업농가

구 육성 등을 통하여 생력화 재배 방식이 될 것이다.

- 3) 축산분야 : 축산은 계속해서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책 지원이 뒤따를 경우 국제 경제력을 갖추리라 전망된다. 생산기반 시설확충에는 가축급수장 및 목책시설이 있으며, 새로운 축산 소득원 개발육성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목장 유지 등이 있다.

7. 개발전망

* 마을주민 숙원 사업의 연차적 해결을 도모한다.

1) 도로정비

마을 안길 포장 : 1개 노선(2,000m)

마을 안길 인도 포장 : 1개 노선(신산~뒤켓 : 20a)

농로포장 : 19개 노선(12,250m)

2) 하수도시설 : 3개소(3,000m)

3) 수도관 시설 : 1개소(양수장~돌케~수어못 : 2000m)

4)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신축(삼달 2리) 1동

5) 기타 : 교량시설 1개소(메이못 : 20m), 마을회관(삼달 1리) 1동

8. 세시풍속 · 향토음식

1) 세시풍속

(1) 정월초하루

초하루날 아침 원근 친척집에 모여서 떡국과 감주만으로 떡국명절을 올린 다음 차례로 자손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떡국 명절을 올리고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한 다음 각자 집으로 돌아가 다채 준비를 한 다음 자손집으로부터 종손집의 순으로 명절차례를 지내는데 가문이 번창한 집안은 종일한다. 그렇지 않은 집안도 정년까지 체제를 지낸다. 동네 웃어른들에게 하는 세배는 과거에는 정월 십오일까지 다녔으나 근간에 와서는 정월 삼일까지 다니는 게 보통이다. 오늘 하루는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 언행에 조심하고 몸가짐을 삼간다. 상경하에 하며 서로 화목한다. 꾸지람을 받거나 넘어져 상처를 입거나 하면 일년동안 내내 꾸지람을 받고 혹은 병에 걸린다 하여 행동에 조심한다. 일년동안 길흉화복신수는 정월 초하룻날 달려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본향당에 부정한다 하여 수육은 금하고 우육으로 적갈을 해서 체제를 올린다.

(2) 토정비결

세배를 마치고 저녁때 쫓이면 오래 당년 신수를 본다. 토정비결은 사백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신보는 일종의 책이니 이에 근원하여 길흉화복의 상지와 근절을 하고 응분의 대책을 세운다. 토정비결을 보는 것은 정초 또 입주네 집집마다 부녀자들과 서민층에 통속으로 되어 있다.

■ 조사자 : 강문종(93), 강혜경(95), 김은숙(95), 오명순(95), 오윤희(95)

方 言

차 례

1. 머리말
2. 조사 어휘
 - 1) 식물명
 - 2) 동물명
 - 3) 어류 및 해산물명
 - 4) 기구명

1. 머리말

이 보고서는 1997년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행해진 성산읍 삼달마을의 ‘방언’ 조사 내용이다. 이미 행해진 예비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작성되었다. 조사는 주로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녹음과 필기를 병행하였다. 『제주어사전』(제주도, 1995)을 참고하여 그 표제어들을 ‘제주방언의 일반형’으로 삼았다.

2. 조사 어휘

1) 식물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삼달마을의 방언형	비고
벼	나록	나록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삼달마을의 방언형	비고
감자	지슬, 지실	지슬	
고구마	감저, 감즈	감저	
보리		술보리	
꿀	촨	촨	
새끼줄	새	새	
한도의 짚	산뒤짚	산뒤짚	
가리	눌	눌	
동백나무	돛박낭	돛박낭	

2) 동물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삼달마을의 방언형	비고
소	쇄	쇄, 부랭이	검은 부랭이
개똥벌레	불한디	불한디	
매미	뫓재열, 왕재열	뫓자리(아주 작은매미)	고삭사리, 고시락자리
울모기	돛줄래	돛줄위리	
맹꽁이	맹마구리	맹마구리	
거머리	거멸	거멸	
장구벌레	장클레비	장칼레비	
방아깨비	심방만축	상동말축	
귀뚜라미	공중이	공중이	
잠자리	밥주리	밥주리	'물자리'라고도 함
소리개	똥소로기	똥수레기	
버섯새	버꽁새	비꽁새	
똥벌레	부구리	부구리	

3) 어류 및 해산물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삼달마을의 방언형	비고
전복	생복/점복	생복	조개

표준어	제주방언의일반형	삼달마을의 방언형	비고
소라	구쟁기/구쟁이	구쟁이, 고동	
성계	구살	퀴, 키	
해삼	해습	미	
미역	매역	매역	
옥돔	생선, 오토미	슬레기	

4) 기구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삼달마을의 방언형	비고
빨랫방망이	물마개	물마개	
쟁기	잠대, 잠대	잠대	
멍에	멍에	멍에	
키	푸는체	푸는체	
쇠	적췌	적췌	
물독	물항	물항	
망태기	맹탱이	망탱이	
식되	돼약세기	돼약세기	
	따비	따비	개간할 때 쓰이는 기구. 웨따비와 썸따비가 있다.
도리깨	도깨	도깨	
	덩드렁마개	덩드렁마개	짚을 두들이는 방망이
곰방메	곰배, 곰배	곰배	
		낫(서서꼴을 베는 자루가 긴 연장)	
삼태기	굴채	굴채	
	술박	술박	
	숫덕	숫덕	아궁이 양쪽에 세운 돌
	숫강알	숫강알	걸어둔 솔의 아래
살강	살레	살레	
화로	화리	화리	
채양	풍채	풍채	

■ 조사자 : 강재혁(92), 김연선(95), 문주현(95), 한혜연(95)

民 謠

차 례

1. 머리말	11) 아왜기 소리
2. 노동요	12) 떼배 짓는 소리
1) ㄱ래 ㄱ는 소리	13) 쉼터 실어 갈 때 부르는 소리
2) 검질 메는 소리	3. 의식요
3) 마당질 소리	1) 달구소리
4) 출 비는 소리	4. 동요
5) 밭 쉬 모는 소리	1) 애기 흥그는 소리
6) 물질 허는 소리	2) 줄넘기할 때 부르는 소리
7) 밭 불리는 소리	5. 타령요
8) 툇질소리	1) 양산도
9) 따비 소리	2) 청춘가
10) 사데소리	3) 창부타령

1. 머리말

<제1일>

오전 9시에 학교에 집결한 학술조사 팀은 인원 파악을 한 뒤 10시에 삼달 1리 초등학교로 출발하였다. 숙소인 삼달 1리 초등학교에 도착한 우리들은 짐을 풀고 마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조사시 유의사항을 전달받았다. 1차 조사는 점심을 먹은 다음에 곧바로 시작되었다. 농사일이 바쁜 시기라서 그런지 마을은 무척 조용했다. 가끔 경운기나 농업

용 차량이 지나갈 뿐이었다. 결국 우리 민요팀은 제보자를 한사람도 만나지 못한 채 초등학교로 돌아왔다. 첫날 저녁은 우리 팀에서 준비하기로 했기때문에 다른 조들보다 일찍 돌아와야 했고, 이날 저녁 조사도 나가지 못했다.

<제2일>

첫째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우리들은 다른 조들보다 일찍 학교를 나섰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여름 햇살은 정말 뜨거웠다. 우선 우리는 삼달 1리 할아버지들의 제보로 삼달 2리의 노인 회장인 강성태 할아버지를 찾아 삼달 2리로 향했다. 강성태 할아버지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큰 듯했다. 우리는 드디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반가움으로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아드님께서 할아버지는 지금 과수원에 나가셔서 저녁이 되어야 돌아오신다고 하셨다. 다시 우리는 해녀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바다로 향했다. 그런데 아직 물질할 시기가 아닌지 해녀들이 없었다. 삼달 1리에서도 역시 우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 할머니들이 일하시는 당근 밭을 다녔지만 할머니들이 못하신다고 거절했다. 점심 때가 다 되어가도 조사를 하나도 못해 어쩔 수 없이 예비답사 때 갔었던 성계순 할머니 댁으로 갔다. 그러나 할머니도 일을 나가셨는지 집에 안 계셨다. 더 이상 돌아다닐 힘도 없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는 학교로 향했고 어두워지면 다시 조사를 나가기로 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서둘러서 바로 삼달 2리의 강성태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우리는 할아버지께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민요조사를 나왔다고 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다.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요청하자 할아버지는 소리를 못할 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있고 해서 부끄러우신지 노래부르는 것을 꺼려하였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 주었으며 노래 솜씨 또한 대단했다. 발음도 정확하였으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소리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노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등 친절을

배푸셨다. 이날 우리는 강성태 할아버지로부터 ‘므쉬 모는 소리’, ‘따비 소리’, ‘아웨기 소리’, ‘떼배 짓는 소리’ 등 여러 소리를 들었다. 젊은 시절 극단에서 잠시 가수생활을 했었다는 말씀에 걸맞게 정말 소리를 잘 하였다. 강성태 할아버지의 맥을 나오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너무 가벼웠다. 이런 좋은 기분을 안고 우리는 예비답사 때 우리를 대해 주셨던 성재순 할머니 맥을 찾았다. 할머니는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매우 반갑게 맞이하셨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공부하는데 고생한다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셨다. 우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예비답사 때 잘 듣지 못했던 소리부분을 여쭙어보며 소리를 녹음했다. 소리를 듣고 나서 사진을 찍으려 하니 할머니께서는 무척 창피해 하셨다. 거의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집을 나서려하자 할머니께서는 아쉬워했고 겨울방학이 오면 밀감을 주시겠다고 꼭 다시 한 번 찾아오라고 했다. 우리가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시간은 9시가 넘어서였다. 숙소에서는 교수님, 선배님들과 함께 어울림 시간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늦게까지 조사를 하고 들어오니 교수님과 선배님들이 고생하였다고 역시 민요조가 최고라고 하셨다.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고 낮 동안의 고생이 말끔이 사라지는 듯 했다. 우리도 정리를 하고 교수님, 선배님과 얘기를 나누고 놀이를 하며 하루를 끝내 갔다.

<제3일>

조사 마지막 날이다. 아침을 먹고 학교정리 및 청소를 하고 우리 조는 전날 조사한 소리를 전사하기 시작했다. 주위의 산만으로 인해 듣기는 힘이 들었으나 비교적 발음이 정확한 강성태 할아버지의 소리는 전사하기가 수월했다. 자세히 들리지 않는 부분은 서로의 의견이 달라 힘이 들었으나 재미도 있었다. 이제는 점심식사와 전체 평가만이 남았다. 전체평가에서 우리 조는 다수의 합의로 제일 열심히 답사를 한 조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 평가가 있는 후에는 조별로 사진도 찍었다. 4시쯤에 버스가 와서 우리 모두는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향

했다.

<제보자>

성재순 (여 · 65세), 한갑순 (여 · 70세), 강애자 (여 · 58세), 김관울 (남 · 70세), 강재흠 (남), 강성태 (남 · 68세)

2. 노동요

1) 그레 그는 소리

이여~니 이여~니 이여동허라 이여동허라 이여~동허라
 우리 어멍~날 날 때에~
 요런 일 허랜. 나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여~니 이여~니~
 이~여동허라
 요거 혼자 그랑 어~어~~요애기덜 밥흐영 먹이젠 이여동~
 허~라 이여~똥~허랜
 이 옛말은 말을 말아
 언제드냐 어두운 집의 오늘에~니 붉은 때에 허라 이여동 허라
 <제보자 : 성재순(여 · 65세)>

2)-1. 검질 메는 소리

앞명에랑 들어나 오~라
 뒷 멩에야 나고라 가라
 검질 짓고 골 너른 밧디 먼디 사람 구경 좋게 메고나 가자
 앞 발~로~랑 허우쳐 가멍 뒷 발~로~랑 가~두쳐 가멍
 먼 디 사람 구경 좋게 보든 디 사람 보거나 좋게
 <제보자 : 성재순(여 · 65세)>

2)-2. 검질 메는 소리

검질 짓곡 골 너른 밧디
아~양~아~양~이여~이요
생일에도 (칭취불능)
아~양~아~양~이여~이요
우리도 요세상 만나 농부가 될 줄 누가 아나
아~양~아~양~이여~이요
이 사람마다 병고치면 공동묘지가 왜 생겼느냐
아~양~아~양~이여~이요
대학생마다 공부하면 농부될 사람 누가 있느냐
아~양~아~양~이여~이요

<제보자 : 김관율(남·70세)>

2)-3. 검질 메는 소리

히여 허어도오리 방아로구나
아하 아하야 헤~야 헤~요
검질 버어친 요오놀래로오구나
아하 아하야 헤~야 헤~요
허허어 앞은 보난 태산이 되고
뒤엔 보니 평지가 된 듯
앞명에랑 들어나 오라
뒷명에랑 나고나 들어
검질버친 요놀래로다

<제보자 : 강재흠(남)>

2)-4. 검질 메는 소리

앞명에랑 떠렁 나오라 아~양 아아야 에~양 에여~
뒷명에랑 나고나 가라 아~양 아아야 에~양 에여~

검질 소리랑 즈직즈직 아~양 에에에
 느영나영 일헐때랑 앙~에 예앙에요
 요놈은 검질랑 나도나도 앙~앙 아야~에영 예요
 느광나광 아니나안들 앙~앙 아야 예앙 예요

<제보자 : 심재순(여 · 65세)>

3) 마당질 소리

에야도 흥~ 에야흥 에야도 흥 에야도 하야 요~마당질
 헤여덩 에야흥 어기야 흥 에야도 하야 에야도 흥~
 요 마당질 헤여~보게 문 뒤 설움 느낄적에 에야도 하양
 요 소리랑 허영가멍 조차들멍 후려나 보게
 에야도 하양 어야도 하야~아 에야도 하야

<제보자 : 심재순(여 · 65세)>

4) 출 비는 소리

이여~~~~여~~~~여
 요런 날에 요런일 허기야~~~~
 생일에도 혼고 (칭취불능) 흐려도

<제보자 : 김관율(남 · 70세)>

5)-1. 무쉬 모는 소리

어러 어러~~~~러~~~~러~~~~
 어러~~덜 덜~러~~~~덜~~덜 덜덜~

<제보자 : 강성태(남 · 68세)>

5)-2. 무쉬 모는 소리

어~어~어~이 어~이 어~호호호~우
 아아~아~이 어~이 어~이~이~에~후~후

아~아~~어어~이~~호~후어
 어~어~어~이 어~이 어~호호호~우
 아아~아~이~~ 어~이~이~에~후~후
 아~아~~~어어~이~~호~후어

<제보자 : 강성태(남·68세)>

6) 물질 허는 소리

이여도 사나~아~ 이여도 사나~어~이여 디여 어기여차나 잘
도 나간다

우리나 베는 솔나무벤데 한 번만 저으면 서구바다 아~디여
나간다 어~여

어기여차나 저어라 (칭취불능) 어기여차라

우리나 어멍 날 날적에 어느 바당 메역국먹영

날도랑간다 이여디여 어야디야 이여도사나 하~ 이여도 디여
으로 요래 (칭취불능) 어기여차라 우리나 어멍 날 날적에 어
느 바당 메역국먹영

날도랑간다 이여디여 어야디야 이여도사나 하~ 이여도 디여
으로 요래 (칭취불능) 삼시끓어 물질 허영 혼푸두푼 모인 금
전 서방님 놀음에 다 들어간다.

요놈 저놈 잡을 놈아 대동강변 못될놈아

한질두질 그 지픈 바당 물질허멍 요고생허젠 날 낳든가 우리
어머니 이여도사나

어야 디여 이여도사나 대천바당 한가운데 베질허는 선장놈
아~아~

혼번도 잘못허민 요 내몸 텡굴어간다 이여도 디여~~ 이여
도 사나 이여도 디여

저어라 맥여 혼목지여 저 바다 텡굴어 가게

혼목지영 디어나 보게 이여도 사나 어야 차라 잘나나간다

이여디여 이여도사나 우리나라 배는 서근 나무 (칭취불능) 잘
도 나간다

이여도사나 저어라 디여 혼목지게 혼목지게
요 케기 남을 주려 디어나보게 이여도사나 저어라 디여

<제보자 : 심재순(여 · 65세)>

7) 발 불리는 소리

허~~~~~허~~~~~허~~이~~야
허~~~~~이야 월~~~허랑 더러려 호호
에~~~으~~어~~~~~허~~~~~
억조창생 만민들아 어 으 어~으~~~~~허~
아덜 낱기를 힘쓰지 말고~~~~~허~
딸낱기만 해~~~힘쓰서요 호호 덜러~~
산지조중은 골룡산이~~~~요
수지조중은 황해나수로~~~~고나 덜러~~~호호호

<제보자 : 감애자(여 · 58세)>

8) 톱질소리

이 나무로 배를 저서 (후렴) 어허허허요하양
앞바당에 띄어 놓으면 (후렴) 어허허허요하양
광풍이나 해적들도 간데 온데 없어진다
요나두 근본이 어디냐 진씨 황제 아방궁에
미참하야 남아잇는 천년 송도 아니웨다
한무제 송도반에 미참하야 남아잇던
만년송도 아니웨다 흥원지기 자야 반에
천황씨가 탄강하다 고명하신 열두선제
천윤지성 풍수하다 목덕이왕 무위하기
만팔천세 살았더라 탐라국 한라산에

천년묵은 아늑찬남 천황씨가 임금하면
천황목이 적실하다

<제보자 : 강재흡(남)>

9)-1. 따비노래

1. 이남 따비야 들어나 가라
저 돌만씩 띄어나 구멍주마
(후렴) 아~헤이~~헤이야 이 남 따비야
2. 주인택이 누게 신디
점심 밥이나 잘 출렸느냐
3. 오늘 일은 대신 어른 집터이매
맹심허멍 잘 갈아나 줍서
4. 날도 좋다 오늘 같으면
성도 얼마 안가시키여
5.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다
금년이랑 풍년이냐 들어 줍서
6. 은따비로 이 밭을 가랑
혼 주 쇠역 갈아 놓으면
7. 대신님에 집도 짓곡
양반님네 온서 집서
8. 팔을 갈까 콩을 갈까
하늘님이 도와나 줍서
9. 내일 장성 오늘이민
한 쇠역 갈겠구나
10. 콩을 심어 팔을 갈아
만구히 풍년되어 내 아들 딸 배불리 먹겠고나

<제보자 : 강재흡(남)>

9)-2. 따비놀이

에 ~ ~에 ~이야

에 ~머르 ~로

어 ~이 어 ~응 어 ~이 이 ~에 들어봐야

어어 ~어 ~ 흐 ~응 ~으이 이 ~에 머르 ~로

어 ~응 흥흥흥이 어 ~어어 ~이 이 ~에 들어밧

<제보자 : 강성태(남 · 68세)>

10) 사데 소리

혜 ~어요로 상사 뒤야요 (후렴)

농부로다 농부로다 천하지대본이 농부로되 (후렴)

요농사를 지어다가 어느야 부모를 살릴쏘냐 (후렴)

<제보자 : 강재흠(남)>

11) 아웨기소리

야야아 ~야 흐 ~응 흐 ~응 이 ~요

한믄루랑 놀고 가자 ~한 믄루랑 쉬고 가자

아 ~야 흐 ~응 흐 ~응 이 ~요

지쳤구나 다쳤구나 구마나 ~나은 지쳤구나

야야아 ~야 흐 ~응 흐 ~응 이 ~요

요리저래 노는 것은 대장부의 놀이로구나 ~

야야아 ~야 흐 ~응 흐 ~응 이 ~요

한믄를랑 놀고 가자 ~

한 믄를랑 쉬고 가자

야야아 ~야 흐 ~응 흐 ~응 이 ~요

물이 들면 수중에서 놀고 물이 싸면 강변에서 놀고

야야아 ~야 흐 ~응 흐 ~응 이 ~요

세월이 가기는 흐르는 물과 같고 사람이 늙어 가기는 바람결 같네

야야아~야 흐~응 흐~응 이~요
젊어 청춘 애끼지 말고 마음 살피 놀아 주소
야야아~야 흐~응 흐~응 이~요

<제보자 : 강성태(남 · 68세)>

12) 떼배 짓는 소리

에에~어~이~~흐~홍 흐~홍 으~기~ 어~이
어기여차 수리로 우겨나 보세
한라산~덩녕하에 백년 묵은 구상나무~
베어다가 심그선 떼배를 몰앗으니
즈~남을~즌테기에~ 받아그네~이 어~이
한 바당에~에 띄~어나~아 놀고
에에~어~이~흐~홍 흐~홍 으~기~ 어~이
어기여차 수리로 우겨나 보세

<제보자 : 강성태(남 · 68세)>

13) 쉼 줄 실어 갈 때 부르는 소리

이~러~ 이~러~~이~러 이~러~루
이러~이러~이러 어라아차
어느때랑 집의 가서~ 한숨에~내려 가그네
이 골른 배를 채와 실코
이러~이러~이러
아침 혼직 걸어 먹은 양 올라 오라그네게~
허기 (칭취불능) 내려 가기가 (칭취불능) 힘이 드는구나
이루~이루~어러~이~러~이~러

<제보자 : 강성태(남 · 68세)>

3. 의식요

1)-1. 달구소리

사공아이는 조종하나마
 어~어~별호
 장군님네 힘을 빌어
 어~어~별호
 먼디사람 듣기나 좋게
 어~어~별호
 즌긋디 사람 구경 좋게
 어~어~별호
 산전 밧디 저물거든
 어~어~별호
 해뜰락 해뜰락 말아기녕
 어~어~별호

<제보자 : 강제흡(남)>

1)-2. 달구소리

어~~~~어~~~~어~~~~~오~~~
 제방산소리에 들리 녀서 어~~허~~어~~허~~
 사람마다 요일을 할까 에~~혜 허~여야~~

<제보자 : 감관울(남 · 70세)>

1)-3. 달구소리(달귀신소리)

에~행 에~야
 칠성꺾치 흠어진 접군
 어~영 멀~로
 다물가치나 모여 주소

어~영 멀~로
요리 저리 노는 것은 이~멀로
대장부의 늠이로쇠 에~에 멀로
백두산 일진맥은 에~에 멀로
삼각산을 삼겨노니 에~에 멀로
북악산을 입수 삼고 에~에 멀로
경복궁을 지엿구나 에~에 멀로
문필봉이 되었으니 에~에 멀로
대대로 문과급제 에~에 멀로
개자 정양에 손서 팔아 어~영 멀로
한광중이 내려 서면 어~영 멀로
문과급제 지제가 되고 어~영 멀로
부귀영화 지제로다 어~영 멀로
어~또 한 번 어~또 한 번
천추만년 살어지고 어~영 멀로
정성들여 지어보세 어~영 멀로

<제보자 : 강성태(남·68세)>

4. 동요

1)-1. 애기 흥그는 소리

웁이 자랑 웁이 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어서 곱앙 어서 자라 자랑 자랑
흔저 자라 우리 애기 잘도 잔다 할마님 즈손 어서 자라
착흔 아기 어서 자라 곱앙 자랑 어서 자랑
어질기쁜 할마님 즈손 어서 자라 착흔 애기
곱앙 자랑 곱앙 자랑 어서 자랑 잘도 잔다

왕이 왕이 왕이 왕이 자랑
곱앙 자랑 자랑아 자랑아 자랑아 어서 곱앙 어서 자라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왕이 자랑 곱앙 자랑 곱앙 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물외킴듯 키와줍서 물외킴듯 키와줍서
어질ㄴ똥 할마님 즈손 어서 곱앙 어서 자라
우리 애기 크민 (청취불능) 총독부가 될거나
아 대통령이 될거나 착한 어린이가 되라
어서 자랑 어서 자랑 곱앙 자랑 곱앙 자랑
어서 우리 애기구나 잘도 잘도 어서 자라

<제보자 : 성재순(여 · 65세)>

1)-2. 애기 흥그는 소리

자랑 자랑 왕이 자랑 어질ㄴ똥 할망손지
저래저래 가는 검둥개야 우리 애기 재와주라
이래 오는 흰둥개야 위 애기 재와주라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어질ㄴ똥 할망손지
귀한애기 재와줍서
물아래 옥돌ㄴ똥 우리 애기 재와줍서
가마귀 저 놀개 닭은 애기 재와줍서
조차오는 제비때 닭은 애기 재와줍서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청취불능) 애기 재와줍서
자랑 자랑 착한 애기

<제보자 : 한갑순(여 · 70세)>

2) 줄넘기할 때 부르는 노래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제보자 : 성재순(여 · 65세)>

5. 타령요

1) 양산도

에헤에이~요 노세 놀아라 젊어 젊어 놀아
 늙어지나면은 못 노나니
 (칭취불능) 에헤에이~요
 저 산에 지는 해는 지고나 싶어서 지고
 날 두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 간다
 예혀라 말도 말어라 네 놈들이 (칭취불능)
 (칭취불능)

<제보자 : 강애자(여 · 58세)>

2) 청춘가

닐리리이 요다지도 없어서 요런 날에다 좋다 요런 일을 허느냐
 잘적에 올적에~ 정들어 놓고요~
 이별에 잣어서 좋다네 문 살리로다 사랑하거든~ 임인 줄 말
 어라
 임은 아니고 좋다 백년이 원수로다
 우리가 살며는~ 얼마나 사느냐~
 막상 산들사 좋다 단 팔십 사는구나
 요놈의 요세상 어찌 하여서~ 이런 날에다 좋다 요런 년 나
 흐냐~이
 사랑하거들랑 임인줄 알아라 (칭취불능)로 못살게나 된다면~
 당신 네꾸다이에 좋다 목을 매여 죽노라

저리 하여서~어 나를 속이고 저리 하여서 좋다 나를 속이느냐
속이는 너년은 좋건만은 속은 내년은 좋다 어찌나 하느냐
싫거든 두어라 이여 내혼자 뿐이라
산넘어 산이 좋다 물넘어 물이여라
사랑 사랑은 천백년 사랑인데 갈 적 올 적에~
아 좋다 짐자듯 지는구나 우리 양부모님 무슨 날에 날 낳기에
요런 고생을 좋다 한단 말이야

<제보자 : 감애자(여 · 58세)>

3) 창부타령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나는 놀지는 못하리다
(청취불능) 개 같은 년도 운지계 종사를 하건만은
(청취불능) 달밝은 년들은 어찌나 하여서 몬 사느냐
얼씨구 절씨구나 지화자가 좋네
바지가람 (청취불능) 못 하리로다
(청취불능)
웃만 지어도 (청취불능)나 된다

<제보자 : 감애자(여 · 58세)>

- 조사자 : 이영웅(93), 강연실(95), 신주행(95), 좌혜영(95), 정영숙(95),
허은정(96)

說 話

차 례

1. 원당할망 전설
2. 매미못 전설
3. 강용성 전설

우리 설화팀은 다른 팀(신앙·민요·방언)과 2박 3일의 일정으로 학술조사를 다녀 왔다. 조사지는 예비조사 때와 같은 삼달리이고, 예비조사를 다녀와서 그다지 낯설지가 않았다. 이번 학술조사는 예비조사 때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설화를 찾기 위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다지 조사 내용이 많지 않았다. 우선 우리는 마을 생성에 관한 전설, 마을에 있는 유적지에 관한 전설 등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삼달리에서 마을 생성에 관한 전설은 찾을 수가 없었고, '본향당', '매미못'에 관한 유적 전설과 '원당할망', '강용성 전설'의 인물에 관한 전설을 찾을 수가 있었다. 다음에 조사한 설화를 소개한다.

1. 원당할망 전설

<조사자 : 여기 전해 내려오는 옛날 얘기덜 엿수과?>

여기 그런거 이신가? 이서 보라.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을에 관 출신이 하나 이신디. 제주시에 이신 관청에서 일했주. 그 사람이 당시 집에 왔다가 제주시 관청으로 올라가고 할 때 그때는 말이 아니면 다닐 수가 없었지. 차가 없는 시절이니까 제주시 삼양에 있는 원당봉 밑에서 이제 그 무녀가 굿을 큰굿을 하고 있거든 아 이제 굿이나 구경 하자고 거기 들어가 보아서. 보니까 그 무녀가 얼굴이 일색이라.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예. 관가라고 하는데 그 관가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복종 아니했다가는 관가의 명으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때이니까 “너 ㄱ치 가자”하니까 이 동네로 데리고 와서 살려고 하는데 이자 벼슬하는 하르부지 때문에 양반의 집이거든 그러니까 무녀라는 일은 상놈이거든 그러니까 그 상스러운 굿을 못하게 막았거든. 그러니까 그 무녀가 속병이 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자기 기술을 이제 피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 이제는 밥도 먹지 못하고 남 텅길 때 몰라가서. 그래서 뼈만 남아서, 결국은 죽었던 말이여. 그 무녀가. 그래서 이제는 그 죽은 다음에 집에 이제 모든 이력이 되지 않도록 또 어린 것들도 괴로워서 자꾸 아프고 또 그 때에 그래 가니까 이제 그 옛날 점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 여기 이제 이름 모를 여신이 어, 그 소란을 시키는 것이라. 그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또 무녀를 딴 데서 불러다가 그 죽은 무녀한테 빈거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에 앞으로 우리집을 평온하게 해 달라고.

<조사자 : 어떤 식으로 빌었수과?>

아니 그건 잘 몰라. 무녀가 와서 그 굿하면서 빌은 거라.

<조사자 : 그럼 그 무녀파?>

아니 죽은 것도 무녀고 그니까 딴 데 무녀를 불러온 거라. 기도를 드려야지. 그 돌아 간 무녀한 태 아 그러니까 집안이 평안하고 아이들도 감기 같은 것도 안 걸리고 아주 된 것 없이 평안히 잘 살거든. 그래 가지고 이제 딸이 어덜로 시집을 가멘은 또 그 시가에 모든 이력이 안되거. 그러니 이제 그 원당할명을 모셔가는 거라. 그 모셔가는 방법

은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이제 그 신을 모시는 거지. 말하자면 그 때에서 가는거지. 그래서 같다 모시민 집이 평안하곡 이러니까 이제 그 원당할명이 집집마다 아 이제 그 조상이 되어서 위대를 받게 되었던 말이야. 그러니까 안해여. 겐디 이제는 그 이제 요즘은 불교를 믿어서 다 그것을 타파해서 믿지 않혀지마는 우리가 젊었을 때까지도 그걸 믿어서. 그 원당할명을 이제 전설적으로 애길 하고 있주. 그리고 그건 그걸로서 그 아까 얘기한 집행장정 하르부지는 아주 큰 급제한 하르부지주.

<조사자 : 그 분 성함 모르시쿠과?>

어, 성함은 잘 모르겠네.

2. 메미못 전설

<조사자 : 거민 예, 특이한 못이나 그런 건 잇수과? 그러니까 그 여기에 메미못에 관한 그런거 님은 거마썸.>

아 메미못은 저 위에 이신 건다. 그 메미못이지. 옛날 지리학자. 풍수지리에 유력한 어지리 말하자면 그 왕족이 돌아가시명 이제 명당 자리를 보고 유명한 어지리가 와서 지명을 지운거라. 그러니까 거기 삼달리에 '갈마음수지지'라고 해서 이자 기록을 해 놔는디 갈마음수지가 어디가 명당인지 지금 찾을 수가 어서. 그래서 그 때에 '갈마음수'라고 하는 것은 어 뭐인가 목마른 물이 물을 마신 다는 의미지. 갈마음수가 그러니까 그 알래미. 즉 '메미'가 말 마 자에 꼬리 미자라. 그래 말꼬리가 글로 휘어졌다고 해서 그 메미가 흐는거라. 그 못이.

<조사자 : 삼달 2리 지형에 관한 전설 같은거 잇수과?>

이제 뭐 당이라고 해서 여기 저기 그 나무 가지에 빨간 형겘. 노란 형겘 이런 거 달아 메곡. 거기 강 음식 차려 그넝 떡 같은 거 행 가그넝 차리곡, 그러다가 그런 건 다 어서졌주. 이제.

3. 강용성 전설

<조사자 :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 잊수과?>

음, 여기 그런 얘기가 이서. 이제 여기 도적이 심하거든. 그 이조 때 주. 말하자면, 도적이 심해가지고 이제 부락에 와서 양식도 털어가곡 그러니까 살 수가 어서. 그 때에 어용성이란 사람이 이서서.

<조사자 : 용생이 파썸?>

강용성이. 그 분이 머리가 영리한 분이주. 영리한 분이다. 이제 그 마적단한테 잡혀가서이 거기에 편입을 시켰단 말이여. 편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허는디. 마적단이 그때 여덟명이 이서서. 여덟사람.

<조사자 : 삼달리 사람들이우과?>

다른 지방. 산에 사는 사람들이었주.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었던 말이여. 그 하루는 피를 써서 어떤 피를 썼나면 이제 우리가 부락에 이제 식량이라든지 돈을 털래 내려갔다가 관가에 우리가 잡힐 것 같으면 우리는 뽕뽕 얻어 목게 되어 죽게 된다고 그러며는 우리가 어떻게 될거나고 아주 일생을 망쳐 버리게 되는 거 아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적단 그 사람덜 하는 말이 그 할 수 잇는 방법이 잇나 하고 물으난 아 좋은 방법이 잇다고. 그 어떤 방법이냐고 다 이제 뽕뽕 얻어 목으라고 이제 나는 이 사람을 목고 이 사람은 이제 적 사람을 목고 그래서 여덟사람 전부를 목으라고 계민 나가 그놈을 딱 묶어 놓 그 베를 딱 끌르는 기술을 배워 준다고. 그러민 어디강 잡혀도 풀려 나온 것은 아니냐고. 그 멍청한 놈들이 아 이제 차례차례 이 사람은 나를 묶어주고 하면서 여덟사람을 다 묶어서. 게 꼬닥 못허 게 댓단 말이여. 게 얻어 묶인 사람덜이 너는 왜 안 묶느냐고. 이 놈들 나 웬수 같으리 온 줄 모르냐고. 이제는 너네들 다 잡았다고. 아 경행 밭에 내려가서 관가에 보고를 해서 관가에 알렸단 말이여. 나가 여덟도적을 다 잡아놔시게 와서 잡아 가시라고. 아 그러니까 판에서 와 보니 하 뽕뽕 여덟 사람을 묶어놔서. 아 그러니까 그 뭐신가. 그 수레라

고 해서 이제 그 놈을 다 관가로 다 끄서갓단 말이여. 끄서 가서 그 놈들을 죄 지우고 이. 어 강용성이라고 한 사람은 에 큰 녹을 받아서 그 관가로부터. 경현 전설이 잇주. 겐디 우리가 보지 았으난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몰라.

- 조사자 : 김정환(92), 부상용(92), 고인준(92), 문미경(95), 고현미(95), 문정아(95), 강영옥(96), 강승민(97), 강익수(97)

信 仰

— 차 례 —

1. 공인신앙
2. 무속신앙
3. 마술신앙

1. 공인신앙

삼달리에는 교회의 사찰이 각각 한 개씩 있는데, 공인 종교로는 기독교와 불교가 있다. 기독교로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인 삼달교회가 있고, 불교로는 대한 불교 조계종인 지장사가 있다.

1) 삼달교회

기독교와의 접촉은 삼달초등학교 교사 중 기독교인의 전도로 시작되다가 1984년 10월 1일 교회 건물이 성립되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 지금은 서울 소망교회 장로로 있는 삼달 출신 강문원씨가 예전부터 교회 설립에 뜻을 두고 있던 중 자신의 땅을 내놓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목사는 따로 없고 전도사를 파견했는데 지금 전도사로 있는 오성범 씨(34세)는 1994년 12월에 네 번째로 부임하였다. 오성범 씨 부부는 교회 건물에 딸려 있는 주택에 살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교인의 실태를 살펴보면 교회가 설립된지 10

년 이상이 되었는데 신도수는 한 가정에 불과하고, 주일학교에 나오는 30~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전부라고 한다. 체보자 오성범 씨는 이러한 현상을 무속신앙과 유교 신앙 등이 마을에 깊게 뿌리 내려 자리잡혀 있고, 예수를 영접하면 친척들에게 배척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때문이라고 전했다. 삼달교회에 온 초기에는 일반 교회들과 같은 전도 활동이었던 것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후부터는 막연한 전도 활동보다는 의료봉사, 민원상담 등 주민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실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믿음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생업이 바빠 접촉할 기회가 적어서 신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2) 지장사

지장사는 삼달리 마을회관에서 40분정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힘들게 도착한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적막한 절간 뿐이었다. 우리는 스님이 잠시 외출한 것으로 믿고 절 주변을 살펴보기로 하고, 나름대로 부처님 앞에서 절까지 올리며 기다리기도 했으나 끝내 만날 수가 없었다. 우리 팀은 다시 해안도로를 따라 달성사로 향했다. 정확한 위치를 몰랐기에 할머니께 여쭙어 가며 힘들게 도착한 그곳은 또 우리를 김빠지게 했다. 속옷 차림으로 나온 스님의 모습, 지장사에서 갈라진 정도의 절이라고만 말하던 스님의 모습……. 우리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달성사로 향했다. 하지만 스님이 계속 나타나지 않아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다시 오기로 하고 마을회관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 팀은 다시 지장사로 향했다. 곳곳에 개짚는 소리가 요란했고, 골목길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들이 귀신으로 보였다. 다시 도착한 지장사는 여전히 고요만이 뿜들었고, 우리는 돌탑을 쌓아 소원을 빌며 돌아왔다. 다음날, 우리는 또다시 지장사로 향했고, 어김없이 절간만이 우리를 반길 뿐이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전화

방문에도 응답이 없는 스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학술조사가 기다려진다.

2. 무속신앙

1) 웃카름당

삼달리에는 '웃카름당'이 있는데 심방은 삼달리에 거주하지 않고, 제주시에 살고 있어 삼달리에서 곳을 할 경우에만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신앙조사반은 심방을 만날 수 없었다. 이장께서 가르쳐 주신 연락처로 연락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웃카름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남제주군 성산읍 삼달 1리 웃카름 당침 우연지경에 위치한다. 당신은 '황서국서 어매장군'이고, 당집 안에 위패를 모시고 있는 위패형·당우형·석원형·전답형이다. 당에 갈 때는 메 2기(사밭메 1기, 보시메 1기)를 가지고 가며, 제일은 정월 2일, 2월 13일, 7월 13일이다.

삼달리 당신 황서국서 어매장군 어매국서 좌정처를 찾다가 이곳에 와 보니 벼룻물이 좋고 세숫물이 좋고 명동나무 아잔 사방더레 후망을 해연, 이곳에 좌정을 하였다. 당 제일은 정월 초 이틀하고, 이월 열사흘, 경하고 이녁 오구정 한때 개날오고, 오늘 개날(戌日)이 주, 액막이도 오늘 해난 모양이우다. 돼지고기 먹은 사름 그디가도 안 흡니다. 제물은 바룻과기, 쇠고기, 독세기, 메 두 그릇하고, 떡하고, 술 사이다로 하나하고, 돈 오천원 하고, 상단궐은 그자 거니림만. 당 매인 심방은 강묘생이엔 현 어른인디 시에 강 살암수다. 여기 이신 남은 닥남, 신남, 대남, 폭남 이거 우리 빛이우다. 다 이거 나가 풀도 뵈수게. 나가 상단궐 막 큰 단궐이우다. 이 당엔 시에 간 사름

도 오고, 서귀포 간 사람도 오꼭. 문탁 외방 간 사람 다 옵니다. 막센 당이우다. 이 당은 원래부터 이 자리에 이서 낫수다. 나가 오랑 보난 쉽디다. 그땐 초집이라. 일본 간 사람이 돈 내노란 스투트 올린 거우다. 혼 30년 되실거라. 삼달리 솟동네 동동네. 삼달 2리도 다 이 당에 옵니다. 본향입주께. 이 당 아진 밧 이름은 '당침우영', '당침밧' 이엔 흡니다. 옛날은 삼년에 혼번 큰굿 해낫수다. 그땐 산신놀이도 흡니다. 굿해나건 딴 오랫동안 흡니다. 제일만 흡니다. 옛날엔 삼년에 한번 굿을 혼단 요섯 사람덜은 굿은 무시거 그자 경 혼년에 서로 의논이 안돼연 그자 제일만 칩니다.

3. 마을신앙

1) 마을제 : 포제 · 기제

삼달리 마을제는 포제 또는 기복이라 한다. 포제일은 정월 또는 상정일(上丁日)에 지내며, 제관은 연말 총회 때 점잖은 인사 가운데서 정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제관들과 그 제관을 돕는 마을 청년들은 포제일 전 2박 3일 동안 합숙생활을 하게 된다. 그 합숙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것을 보아서도 안되고, 몸을 청결히 하고, 포제의식 절차와 방법들을 익히게 된다. 포제일 23~24시는 제사 준비와 의관을 갖추고, 20~25분간의 제사를 행하게 된다. 새벽 4시와 5시 사이에 모든 행사가 끝나게 되는데, 제사장은 북향과, 서향과 두곳에 차린다. 돼지 두 마리, 해어, 밤, 꽃감, 대추, 배, 해삼, 사과 등이 올라간다. 이런 재물은 연말 총회때 예산안을 작성하여 마을 주민들이 각각 천원씩 준비한다. 포제 홀기와 대축은 다음과 같은데 한자는 생략하여 표기하였다.

(1) 홀기

- 알자는 헌관이하 제집사를 인도하여 문밖에 나아가 들어서시오.
 - * 우리포제 제단에는 문이 없으므로 종전대로 자리에 들어서시오.
 - 알자는 대축 및 제집사를 인도하여 제단 남쪽 배위로 들어서시오.
 - 축 이하 모두 사배하시오.
 - 관세위로 나아가 손을 씻고 각각 제자리로 들어서시오.
 -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들어 서시오.
 - 알자는 초헌관 좌측에 나아가 근구 청행사라고 고하시오.
 - * 알자는 초헌관 뒤쪽 조금 물러선 자리에서 좌측으로 돌아 앞으로 나와
 - 초헌관 좌편에 일어서서 근구청행사라고 고하고 제자리로 들어선다.
 - 헌관이 모두 사배하시오.
 - 전 폐례를 봉하시오.
 - 알자는 초헌관을 관세위로 인도하시오. 초헌관은 북쪽을 향하여 서
- 시고
- 홀을 거두시고 손을 씻으시오.
 - 초헌관은 홀을 잡으시오. 알자는 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북쪽을 향하여 꿇어 앉으시고, 홀을 거두시고, 세 번 향을 사르세요.
 - 폐백을 헌폐하시오.
 - 초헌관은 홀을 잡고 부복하고 일어나시오.
 - 다음 초헌관은 신위전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꿇어 앉으시고 홀을 거두고 세 번 향을 사르세요.
 - 폐백을 헌폐하시오.
 - 초헌관은 홀을 잡고 부복하며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헌관이 모두 사배하시오.
 - 작헌례를 봉행하시오.
 - 알자는 초헌관을 준소로 인도하시오. 서쪽을 향하여 서시오. 술을 따르시오.
 - 알자는 초헌관을 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초헌관은 북쪽을 향하여

꿨어 앉아 홀을 거두고 헌작하시오.

· 초헌관은 홀을 잡고 인도하시오. 초헌관은 뒤로 조금 물러나 무릎을 꿇어 앉으시오.

· 대축은 신위전 오른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독축하시오.

(2) 대축

수토지신 운행지신 영전에 삼가 엎드려 아뢰옵니이다. 현명허산 존령이시어. 이 땅에 비추어 주시며 아올리 해와 달을 밝게 광명을 주시고, 비와 이슬을 내리시고, 혜택을 베풀어 주시니, 높고 높은 존령에 혜책이라 하늘을 우러러 빌며 말하기에 어찌 두려워 아니 하리오. 근래에 이르러 운문하는 말에 따르면 나쁜 병들이 간간히 발생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 어찌 두렵다 아니 하리오. 존령이 우리 향만을 지켜 주시니 어찌 나쁜 질병을 두려워 하리오. 이에 좋은 길신 첫 정해일을 맞아 정성을 다하여 제를 모시고 축을 고하나이다. 비록 넉넉치 못한 회성과 폐백을 올리니 저희들의 조그마한 정성이오니 흠향하소서. 우리 고향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화기를 이르켜 주시고한 해동안 나쁜 액을 구름 걷히고 막아주시고, 철모른 어린이들의 유행하는 질환을 쓸어 버리고, 집집마다 태평하고 안락하게 하소서. 오곡이 풍년되고 육축이 병없이 자라나도록 이에 누가 내려와 주시오니까. 오직 존령이 은덕이올시다. 길이길이 해마다 제를 엄숙히 모시고 보답하오리다. 한 마음 변함없이 길이길이 사오 하리이다. 흠향하소서.

<제보자 : 정춘웅(남·55세), 현재 삼달리장>

■ 조사자 : 고운산(92), 정경미(94), 김지은(95), 김진희(95), 이영자(95)